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9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27일 (음력 2월 21일) 수요일

전남 연안 해양쓰레기 몸살...수거량 전국 최고



해양쓰레기가 바다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의 쓰레기 수거량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3년 3만7015t이던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2018년 8만7273t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거 주체의 이원화는 열악한 재

2013년 3만7015t→지난해 8만7273t...전남 37% 차지 서삼석 "수거 주체 이원화...국가 주도 통합관리 필요"

지자체별로 수거량의 편차도 심해 11개 지자체 중 전남이 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 14%, 제주 14%, 충남 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쓰레기 형태에 따라 수거의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분리되면서 지자체가 책임지는 쓰레기의 수거량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서삼석 의원

정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

또 악취와 미관저해, 해안가 쓰레기의 바다 유입으로 인한 바다생물의 서식지 파괴 등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발생원인이나 경로에 초점을 맞춰 수거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경은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로, 국가주도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Photo 漫評

작가

성폭력·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이 지난 주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단졌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책 회의의 시작에 앞서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 묻는다"며 그를 향해 쓴대사를 읽었다. 과거사위 위원이나 위원장이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조사 대상자를 겨냥해 발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 대행은 "우리 국민들 심지어 인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까"라며 "보내 전직 고위 검사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지어 출국이라니요"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뭤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김 전 차관을 비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 사진=뉴시스

광주 대표 전통문화 '고싸움놀이 축제' 개최

30일부터 이틀간 투호·굴렁쇠·연날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 다양



한 해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광주 대표 전통문화 '고싸움놀이 축제'가 펼쳐진다.

남구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제37회 고싸움놀이 축제를 열고 26일 밝혔다.

제삼민사, 고로 엮고 고로 풀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통 놀이와 버스킹, 퓨전댄스 등이 결합해 체험 형태

로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3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에게 선을 보인다.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주무대에서 투호를 비롯해 굴렁쇠 굴리기 등 옛 추억을 소환하는 3대 전통놀이 대회가 펼쳐진다.

제대회장에서는 투호놀이뿐만 아니라 고리 던지기, 윷놀이, 제기차기 경연이 진행되며, 제대회장에서는 굴렁쇠 굴리기, 구

슬치기, 딱지치기 무대가 마련된다.

제3대회장에서는 모래주머니 들기와 팔씨름 5인 줄다리기 이어질 예정이다.

주무대 인근에서는 연 날리기와 소원지 쓰기, 포토존, 소원 점집, 조선 최초의 음악다방 떡 메치기, 국악 버스킹, 한복 마당 등 상설 무대가 진행된다.

오후 7시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고싸움 오프닝 무대가 펼쳐진다.

전통문화 연구회 일수의 막을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칠석동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소원을 담은 달집태우기, 고싸움 시연이 연달아 이어진다.

모든 국악과 국악 난장, 국악 신동의 끼를 각각 맛볼 수 있는 무대와 고싸움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으로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레이저 쇼 및 불꽃 놀이가 축제의 흥을 돋울 것으로 보인다.

31일에는 남장동 줄타기 묘기와 퓨전 국악그룹인 하늘다래 예술단의 공연 5인 줄다리기 결승전 및 대동 줄다리기, 여러 개의 연을 하늘에 날리는 나래연 시연, 고싸움 시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슬픈 기억을 잊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며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인 고싸움놀이 축제장을 많이 찾아 한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확대...전수조사도

대상 확대...전수조사도

전남도해양수산기술원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 품목 확대와 조사 범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물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품목은 기존 48종에 우렁이, 양태, 민꽃게 3종이 추가된 51품종이다.

검사도 수산물 금지약품, 환경호르몬, 미생물 2종, 총 4개 항목이 늘어난 73개 항목을 한다. 또 양식수산물의 조사 누락 방지를 위해 기존 표본조사 방식에서 중점관리 품종인 넙치는 연 1회, 뱀장어 등 관리품종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은 5년 내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남도해양수산기술원은 부적합 수산물 생산 이력이 있는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조사를 하고, 동물용의약품 중 처방이 잦은 약품은 조사 항목으로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양식수산물 이외에 연근해 수산물의 방사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산물 위생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위해 요소 모니터링 및 특별조사를 함께 펼칠 계획이다.

오광남 원장은 "국민들이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정정 수산물을 가정 식탁에서 안심하게 섭취할 수 있게 양식장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단계부터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이번도 추가 심폐안 했어도...



국민을 뭤로 보고...



인생 꼬이는 소리가...

김학의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